공설기\_패턴을 찾아서 발표자료

|  |  |
| --- | --- |
| 슬라이드 1 | 안녕하세요 ‘패턴을 찾아서’에 대해 발표하게 된 유동혁 입니다. |
| 슬라이드 2 | 제가 발견한 패턴은 저희 집 근처인 서울대입구역의 작년 말쯤 완공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.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 근처이기도 합니다.  이 건물은 유리 외벽에 하얀 두부조각을 붙여 놓은 듯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.  오른쪽 사진은 저희 집에서 바라보았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. |
| 슬라이드 3 | 하지만 이 건물은 작년 초인 1월 11일에 불이 난적이 있습니다. 이때는 건물 외벽만 완공되고 내부공사 중 이였는데요, (클릭) 왼쪽 사진은 불이 났던 날 밤에 찍힌 사진이고, 오른쪽 사진은 그 다음날에 찍힌 사진입니다.  제가 이때 당시에 고3이라고 핸드폰을 없애 버려서 직접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사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 (클릭) 이렇게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화재였습니다. |
| 슬라이드 4 | 서울대입구역 주변 지도 입니다.  이렇게 제가 다녔던 학원과 불 난 건물은 21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 대피할 필요없이 불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.  2시 반쯤 은 점심시간 후 1시간정도 지난 시간대여서 자습하는 학생들이 배부르고 따뜻하니 엄청나게 조는 시간입니다. 그렇게 졸던 아이들이 갑자기 창밖을 보면서 웅성대기 시작해 저도 창밖을 보았더니 연기가 엄청나게 나고 있었습니다. 아예 몇 명은 창문에 붙어서 구경할 정도 였습니다.  이 사건은 아이들 입에 오르내리며 소문이 부풀려지다가 (클릭)  ”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다가 - 이때 당시에 공사장이 너무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– 결국엔 방화를 했다”  는 소문도 있었고 사고 후에도 불탄 채로 남아있으니 (클릭)  “불이 나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 저렇게 수습도 안하고 건물이 버려졌다”  는 소문도 있었습니다.  또, 불이 나고 반년쯤 지났을 때에는 (클릭)  “발화 원인을 아직도 모른다. 어떤 조직에 연루된 것 아닌가?”  와 같은 소문도 있었습니다. 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소문들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너무 재밌을정도로 지루했던 고3때 엄청난 화젯거리가 되었습니다. |